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c.net

주일오전설교

기도, 지혜, 말

[골 4:2]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내용, 자신의 죄와 부족에 대한 고백의 내용, 또한 여러 가지 간구의 내용이 포함된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다. 성도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한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길이며 신앙생활의 힘이다. 우리는 기도를 항상 힘써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힘을 잃고 쇠약해지고 말 것이다.

우리는 기도와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기도는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일이다. 누가복음 21:34-36,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덩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人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6:41,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특히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이다. 잠언 3:6,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불평과 원망은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 나온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는 기도이며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항상 힘써야 한다.

[3-4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원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서신들에서도 이런 교훈을 했다. 에베소서 6:18-19,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

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데살로니가전서 5:25,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전도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가?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며, 특히 전도와 목회에는 더욱 그러하기 때문이다. 기도보다 더 힘있는 후원은 없다. 그것은 물질적 후원이나 말의 격려보다 더 큰 후원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많은 기도의 후원을 요청한 것이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종들을 위한 최대의 후원은 그들을 위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후원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문을 열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야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신성(神性)과 그의 대속 사역을 가리키며, 또 그가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구주가 되신다는 것도 포함한다.

사도 바울은 전도의 내용을 ‘마땅히 할 말’이라고 표현했다. 전도자가 전해야 할 내용은 사도시대로부터 분명했다. 그것은 또한 가감할 수 없는, 확정된 내용이 었다. 그는 갈라디아서 1:8-9에서 그가 전한 복음, 곧 그들이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복음은 교회가 마땅히 전해야 할 내용이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힌 바 되었다. 이 세상은 항상 하나님께 대해 적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전파하면, 세상은 반감을 가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눅 6:26).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하였고(딤후 3:12), 또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

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고 했다 (딤후 4:5).

[5절]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최선용하라].

‘외인’은 교회 밖의 사람들 즉 불신자들을 가리킨다. 성도는 불신자에 대해 지혜롭게 행해야 하며 특히 세월을 아낌에 있어서 그러해야 한다. 성도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5:15-17, “그러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므로 성도는 TV 시청이나 오락이나 취미 생활에 너무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돈을 버는 것도 적당히 하는 것이 좋다. 돈을 버는 일에 너무 바빠서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이다. 먹고 살 정도만 되면, 신앙생활에 힘쓰는 것이 참된 행복이다. 성도에게는 개인적인 성경 읽기와 기도, 공적 예배, 전도, 교회 봉사가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우리는 특히 불신자들을 향해 시간을 선용해야 한다. 우리는 불신자들과 단순한 교제로 시간을 보내지 말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교제해야 한다. 전도는 믿지 않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전도의 목표가 없는 교제는 참된 이웃 사랑이 없는 것이다.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루게 할같이[간을 하듯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는 소금으로 적절히 간을 하듯이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한다. 우리는 싱거운 말이나 짠 말을 피해야 한다. 아무 의미나 가치가 없는 농담이나 웃기는 말, 허탄한 말, 거짓말은 싱거운 말이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은 짠 말일 것이다. 우리는 진실하고 선한 말,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한다. 에베소서 4:29-32,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救贖)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훼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베드로전서 2:1-2,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꾀술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항상 우리의 말을 가디듬으면, 우리는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바를 알 것이다. 말에 온전한 자가 온전한 자이다(약 3:2). 혀는 능히 길들일 자가 없으나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은 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다(약 3:8, 27).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주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 있는 자는 항상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감사하기를 힘써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 즉 전도와 목회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매우 귀한 일이다.

셋째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 지혜롭게 행하고 시간을 선용해야 한다. 우리는 짧은 인생에서 귀한 시간들을 헛되이 쓰지 말고 특히 믿지 않는 자들을 주께 인도하기 위해 가치 있게 써야 한다.

넷째로, 우리는 소금으로 적절히 간을 하듯이 항상은 해로운 말을 하고,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바를 알아 선하고 유익하고 덕스러운 말을 해야 한다. 우리는 선하고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을 해야 한다.

주일오후설교 일곱 대접 재앙 (1)

[계 16:1]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일곱 대접의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재앙이다. 요한계시록 15:1, 7,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성취되리로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요한계시록 8:13은 마지막 세 재앙에 대해 말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우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소리를 인함이라도 하더라.” 그것은 다섯째 나팔 재앙부터 일곱째 나팔 재앙까지를 가리켰다.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다섯째 나팔은 황충 재앙으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

나로 인해 무저갱의 구멍이 뚫리고 거기에서 올라오는 황충들 즉 메뚜기들로 인해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않은 사람들이 다섯 달 동안 고통을 받는 재앙의 환상이었다.

여섯째 나팔은 유브라테 강 부근에서 일어날 세계적인 전쟁에 대한 환상으로 그 전쟁에 동원될 군인들의 수가 2만만 곧 2억명이고, 그 전쟁으로 죽는 전사자의 수가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다. 그것은 3차 세계대전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이어서 11장에 3년 반 동안 예언할 두 증인에 대한 예언과 거룩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명이 죽는 큰 지진에 대한 예언이 있었다.

또 일곱째 나팔은 붉은 용 곧 마귀와 사탄이 천국에서 땅으로 내어쫓김(12장)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두 짐승에 대한 환상(13장), 또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 즉 땅에서 구속(救贖)받은 14만 4천명의 성도들의 환상(14장)과 승리자들이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바다 가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곧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는 환상(15장), 그리고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한 환상(16장)으로 이어졌다.

[2절]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악하고 독한 헌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악하고 독한 종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났다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은 이 재앙에서 면제됨을 암시한다. 그 재앙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구별하신다.

[3절]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는 심각한 적조현상을 나타내고 모든 바다 생물들은 죽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해산물의 공급 중단으로 큰 고통을 당할 것이다.

[4절]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매 피가 되더라.

물은 사람의 생존에 필수적이다. 몸의 약 70퍼센트는 물이다. 사람들은 식수원들의 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5-6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서는 공의의 심판자이시다. 적그리스도와

그 나라 사람들이 의로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로 그들이 피 같은 물을 마시게 하실 것이다.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이것은 6장에 기록된 순교자들의 영혼들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같다. 그들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했고 하나님께서는 일곱 대접 재앙으로 그 호소에 응답하셨다. 그 재앙으로 순교자들의 영혼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참되고 의로우심을 증거할 것이다.

[8-9절]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휘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태양의 표면 온도는 약 5,500도이며 태양의 중심 온도는 약 1,500만도로 추정된다고 한다. 만일 태양 주위의 가스층이 대폭발을 한다면, 태양의 표면 온도는 급격히 올라갈 것이다.¹⁾ 그러지 않아도, 오늘날 지구는 온난화 현상 때문에 이상 기온 상승으로 인한 극심한 더위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태양의 표면 온도가 급격히 높아진다면, 지구의 생명체들은 태양의 열기로 인해 태움을 입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재앙을 받으면서도 악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사실, 회개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만 할 수 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회개할 만한 때에 회개해야 한다. 이사야 55:6,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는 회개를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회개할 마음을 주실 때에 바로 그때 그곳에서 즉시 회개하기를 힘써야 한다.

[10-11절]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휘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종기’는 2절의 ‘헌데’와 같은 단어(헬로스 ἔλκος)다. 짐승의 나라 즉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곧 어두워졌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었다는 것은 혼란하고 쇠퇴하며 몰락하게 됨을 뜻한다. 사람들의 고통은 독한 종기와 태양 열기로 인한 것일 것이다. 하나님

1) 태양의 표면 온도가 약 200만도로 올라간다고 한다. 전선교 지구의 종말 어디까지 왔나 (계시록학회, 2001), 320쪽.

께서는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신다. 죄는 일시적 쾌락을 줄지 모르나, 그 결과는 재앙과 큰 고통이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아픈 것과 좋기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개하고 자기 행위들을 회개치 않았다. 넷째 대접 재앙의 경우와 같이, 그들은 회개치 않을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공의로우시며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심을 알아야 한다. 5-6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오니다 하더라.” 사람의 판단은 불공정하고 편파적이기 쉬우나 하나님의 판단은 공의로우시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특히 악인들에게 엄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대접 재앙은 땅, 바다, 강과 샘, 해, 짐승의 보좌에 쏟아졌다. 특히 땅에 쏟아진 재앙으로 독한 종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났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죄인들이다. 마지막 심판 날에,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벌을 받을 것이다.

셋째로,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가능하다.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회개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할 마음이 들 때 즉시 회개해야 한다. 이사야 55:6-7,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는 몸이 조금 아플 때라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회개할 것이 없나 자신을 살피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주 고난을 통해 교훈하신다. 우리는 항상 회개하기를 힘써야 한다.

수요일 설교 불신실하게 행치 말라

[말 2:1-2]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3절]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재(자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4-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안의 언약을 레위와 맺으셨다. 구약시대의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속죄 사역을 예표했다. 속죄는 영생과 평안의 길이다.

[7-9절] 대제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10-12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궤사를 불신실하게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궤사를 불신실하게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13-16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니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 되 네가 그에게 궤사를 불신실하게 행하도다. . . .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느니라. 옷으로 학대를 가리우느니라(원문, KJV) 자를 미워하노라.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신약 성도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말라기 선지자 당시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레위와 맺으신 언약, 곧 생명과 평안의 언약을 파하였다. 신약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벧전 2:9). 성경은 생명과 평안의 언약, 곧 영생의 복음과 평안의 약속이다. 우리는 성경의 복음을 믿고 그 교훈을 행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신앙이 점점 해이해지고 성경의 충실한 강론이 사라지고 예배 방식과 교회음악까지도 속화되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강해와 교리 학습을 통해 성경적 복음 신앙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 오늘날도 성경 교훈을 저버리는 성도는 멸시와 천대를 받을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성도 상호간에 불신실하게 행치 말아야 한다. 우리는 서로 속이지 말아야 한다. 성도는 특히 젊어서 취한 아내에게 불신실하게 행치 말아야 한다. 성도는 결혼 서약을 저버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결혼 서약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엄숙한 서약이다. 하나님께서는 이혼하는 것과 상대방을 학대하는 것을 미워하신다. 우리는 성경 교훈대로 경건하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선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

책인내 ○ 신약성경 전통본문 옹호. 166쪽.

○ 공산주의 비평. 4판. 44쪽.

○ 요한 1, 2, 3서 유다서 강해. 2판. 104쪽.

○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강해. 2판. 169쪽.

○ 천주교회 비평. 2판. 97쪽.